

近代語 資料로서의 『增修無冤錄諺解』*

장 윤 희

1. 서론
2. 표기·음운론적 특징
3. 문법론적 특징
4. 어휘론적 특징
5. 결론

1. 서론

『增修無冤錄諺解』는 살인 사건과 관련된 옥사에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된 검시 지침서이다. 중국 元의 王與가 至大元年(1308)에 宋의 『洗冤錄』, 『平冤錄』, 『結案程式』 등을 참고하여 시신 檢驗 내용을 엮은 법의학서 『無冤錄』이 여말선초에 우리 나라에 전래된 이후,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獄事와 관련된 검시의 지침서 역할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의 내용이 어렵고 元에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알기 쉽게 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졌다. 왕명으로 『無冤錄』에 註釋을 붙이고 품과 訓을 새로 달아서 1440년(세종 22)에 강원도 原州牧에서 “鉞梓”하여 반포한 『新註無冤錄』, 이 책의 字句상 오류나 난해한 내용에 대해 具宅奎(1693~1754)가 왕명을 받들어 『洗冤錄』, 『平冤錄』, 『未信編』 등의 책을 참고해서 보완해 1748년(영조 24)에 간행한 『增修無冤錄』, 이 책에 구택규의 아들 具允明(1711~1797)이 律學教授 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添潤”하여 1796

* 이 글은 2000년 11월 3일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에서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의 형성과정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2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장윤희(2000) 중, ‘3.2. 국어사 자료’ 부분만을 뽑아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년(정조 20)에 校書館에서 간행한 『增修無冤錄大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왕명으로 이 『增修無冤錄大全』을 徐有隣(1738~1802) 등이 언해하여 같은 1796년(정조 20) 校書館에서 3권 2책으로 간행한 책이 『增修無冤錄諺解』이다.¹⁾

원간본 『增修無冤錄諺解』는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현재 이를 복각한 목판본 2종이 현전한다. 실록 기사에 따르면 활자본 『增修無冤錄諺解』는 곧바로 關西와 兩南 監營에 보내졌는데(정조실록: 20년, 11월 甲辰條), 현전하는 목판본 가운데 하나에 '丁巳(1797)七月嶺營新刊'의 刊記가 있다. 이 嶺營版을 볼 때, 원간본 『增修無冤錄諺解』는 각 지방에 보내져 바로 이듬해인 1797년(정조 21)에 복각본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嶺營版이 아닌 또 다른 목판본도 원간본을 복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印面과 권1의 47, 48장 두 장이 補版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嶺營版과는 다른 版의 후쇄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增修無冤錄諺解』가 18세기 말에 비로소 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법 형태소나 단어의 형태나 기능이 중세어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후술 참고), 이 책이 지닌 독특한 성격으로 언급될 수 있다. 근대어 시기에 간행된 경서류 언해서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에 간행된 언해서를 참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전의 국어 모습이 나타나는 일이 많지만, 근대어 단계에 처음 간행된 책에는 당시의 언어가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에도 지금까지는 이 책을 다른 근대어 자료와 동일하게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 책이 지닌 국어사 자료로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책이 지닌 국어사 자료, 특히 근대어 자료로서의 특성과 가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增修無冤錄諺解』가 간행되기까지의 경위와 『增修無冤錄大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윤희(2000)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增修無冤錄諺解』가 『增修無冤錄大全』을 언해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체제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어서 『增修無冤錄大全』의 권두에 跋文이 있고 본문 가운데의 '增註'가 있지만, 『增修無冤錄諺解』에서는 跋문이 없고 '增註'는 본문이 아닌 언해문 가운데 '增註'임을 밝히지 않고 그것도 원문 그대로 아니라 일부분만을 언해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책의 간행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792년(정조 16)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정재영(1999/2000)과 장윤희(2000)에서 1796년(정조 20)임을 밝힌 바 있다.

2. 표기 · 음운론적 특징

1) 표기상의 특징

국어 표기법 문제에 있어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는 음절말에 몇 개의 받침이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와 이른바 連綴, 分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음절말 중화 현상과 관련된 문제이고, 후자는 실제 음절 단위의 표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표기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그릇<1:1b>, 이웃이어나<1:18a> ; 굶<1:42a>, 덧게<1:50b>, 못고<3:26b>
- (2) 가. 북검이라<1:1a>, 흙을<1:54a> ; 죽엄이<1:5a>, 다흙애<1:28a>, 검흙흙이라<3:50b>
 가. 거순<1:36a>, 무어슬<3:66b> ; 보내물<1:6a>, 오라매<1:50a>
 나. 초자<1:16b>, 업스며<1:25b>, 무려 <1:55a>, 꾸러도<2:10a>, 시스면<3:79b>
 나. 덕엇다커나<1:13a>, 석은<1:49b>, 검붉으며<2:3a>, 열어<2:16b>, 죽은 <3:32b>.
 다. 모도나<1:1a>, 니기뎛<1:3b>, 마잡학든<1:16a>, 저기도<1:16a>, 소겨<1:18b>
 다. 알오면<1:1a>, 죽인<1:12a>
- (2) 늘으면<1:32b>, 임의 <1:33a>, 널으라<1:55a>
- (3) 보돌웃시며<1:25a>, 에엇치 <1:28b>, 낫치나<1:35b> ; 좇차<2:4a>, 옛트면 <3:27a>

(1)은 이전 시기인 중세국어 시기에는 '그릇/그릇, 이웃', '굶', '덧게, 못고' 등과 같이 음절말에서 'ㅅ'과 'ㄷ'이 구별되어 적혀던 것들이 이 문헌에서는 모두 'ㅅ'으로 적혔음을 보인 것이다. 이른바 7종성법에 의한 표기이다. (2가)에서는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계사가 통합하는 경우에 분철 표기되었음을 보인 것인데, 이러한 분철 표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2가')에서 보듯이 이러한 경우에도 연철되는 일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2나)는 자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한 경우에

연철 포기되었음을 보인 것으로서, 이러한 환경에서 (2나')과 같이 분철 포기되는 경우도 보인다.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연철과 분철 중 어느 것이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단어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떡-, 붓-, 죽-' 등은 분철 포기되는 경향이 강하다. (2다)는 파생어의 경우 어간은 일반적으로 연철했음을 보인 것이지만, (2다')과 같이 분철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한편 (2')은 앞서 살펴본 분철 포기 경향 때문에 분철할 환경이 아닌데도 분철 포기한 이른바 과도분철 포기가 나타남을 보인 것이다. 이는 당시에 분철 포기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3)은 일종의 혼합 포기라고 할 수 있는 중철 포기의 예를 보인 것으로,²⁾ 중철 포기도 7종성법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철 포기의 경향도 강하게 발견된다. 이상에서 『增修無冤錄諺解』의 포기는 7종성법을 따르고 있고, 분철, 중철의 경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포기 경향은 18세기 후반의 문헌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밖에 『增修無冤錄諺解』에서 발견할 수 있는, 18세기 후반의 문헌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포기 경향은 다음과 같다.

- (4) 가. 뉘하야<1:2a>~꺼져시며<1:24a>, 썩러던<3:9b>, 쓰느<1:19a>~떼스면<1:40b>, 짜더여<1:12a>~빠와<3:18b>, 썩물<1:19b>, 炭火로써<1:48a>~뵈로뻬<1:48a>.
 나. 分明홀 꺼시오<1:36a>, 檢驗홀 떠너라<1:5b>
 나'. 죽을 거시니<3:20b>, 本 시신일 시 올흐며<1:21b>
 나''. 궂디 아니홀짜<1:3a>
- (5) 압히어나<1:22a>, 곱히<1:24b>, 갖히셔<1:26a>, 덩허<1:32b>, 덩흐면<1:35b>
- (6) 가. 구을너<1:3a>, 놀나<1:8b>, 다덜너<1:24b>, 불덜너<1:42a>, 물노뻬<1:47b>
 가'. 열리고<3:48a>
 나. 別별노<1:4b>, 時日日일노<1:36b>
- (7) 가. 어두어<1:37b>, 구어<1:42a>
 나. 뉘보와<1:11a>

2) 이 가운데 '에엇치'는 중세국어의 '엥엇/엥엇'에서 재구조화한 '에엇'(후술 4장 참고)에 처격조사 '-이'가 통합한 '에엇이/에어치'의 중철 포기이다.

(4)는 된소리 표기의 예이다. (4가)를 통해서 된소리 표기에 전통적인 ‘시’계 합용병서는 물론 ‘비’계 합용병서, 각자병서 등이 모두 사용되어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나)는 특히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된소리 표기에 주로 각자병서가 사용되었음을 보인 것인데, (4나’)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서도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4나’’)은 오히려 이전에는 합용병서로 표기되는 일이 없었던 의문법 어미 ‘-을가/을까’가 ‘-을까’와 같이 ‘시’계 합용병서로 표기된 일도 있음을 보인 것이다. (5)는 어중의 유기음을 폐쇄음과 ‘ㅎ’으로 재음소화하여 표기하는 이른바 재음소화 표기의 예이다.³⁾ (6가)는 어중의 ‘ㄹㄹ’ 연쇄를 ‘ㄹㄴ’으로 적는 일이 있었음을 보인 것인데, 이러한 표기에도 (6가’)과 같은 예외가 있다. 특히 (6다)에서는 이러한 표기 경향이 한자를 노출시킨 표기에서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가)는 ‘어듭+어’, ‘굽+어’의 활용형인 ‘어두워’, ‘구워’에서 어간 원순모음에 의해 후행하는 ‘w’를 탈락시킨 표기이다. 이러한 표기는 중세국어 시기에 ‘도아’(←듭+아), ‘고아’(←굽+아) 등에서부터 보이던 것이다. (7나)는 (7가)와는 반대로 ‘뚫보+아’인 ‘뚫보아’의 표기에 어간의 원순모음의 영향으로 후행음절에 ‘w’가 더 들어간 표기도 있었음을 보인 것이다.

2) 음운론적 특징

음운론적인 측면에서도 『增修無冤錄諺解』는 18세기 후반의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가. 맞져<1:3a>, 문혀져심으로<1:5a>, 다집<1:22a>, 꺼져시며<1:24a>, 혼굴꺾
 치<1:37b> : 지원키롤<1:6b>
 가. 그르팀이<1:1b>, 맞티<1:11ab>, 여러 가더로<1:14b>, 갓티<1:24a>, 미티
 더<1:32b>, 기름털흔<1:41b> : 담작흐며<1:16b>.
 나. 디나감을<1:7a>, 아더 아너티<1:18b>, 맞더<1:28a>, 티면<1:31b>, 덩허
 <1:32b>, 솔더며<1:46b> : 리당뉘라<1:56b>, 덩박이<1:62a>

3) 이 가운데 ‘압히려나’는 ‘앞히려나/아피어나’의 ‘ㅍ’을 재음소화하여 표기한 것이다. ‘앞’은 중세국어 ‘앞’이 16세기에 재구조화한 것이다. ‘갓히셔’는 ‘갓히셔/가쳐셔’의 ‘ㅈ’을 재음소화하여 표기한 것이다.

- 다. 體테<1:2a>, 致티<1:3a>, 丁딩<1:18a>, 地디<1:22a>
 (9) 니를 불어<3:44a>, 니기듯 <1:3b>, 녀흐로<1:22a>, 널원<1:33b>, 넘어시면
 <3:40a> ; 리당뤼라<1:58b>
 (10) 물에<1:13b>, 불 턱운<1:25a>, 허몰이<1:37a>
 (11) 가. 흘골ㄹ치<1:37b>
 나. 庫히<1:56a>

(8가)는 『增修無筭錄諺解』에 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예들 가운데 특히 ‘지완키를’은 한자어 ‘遲緩^ㅎ-’의 활용형을 표기한 것인데, 한자어에서도 구개음화가 적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뒤의 (8나)와 (8다)에서 보이는 사실과는 달라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⁴⁾ 이 당시에 구개음화 현상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8가)이다. 이는 원래 어형이 각각 ‘그르침이/그르치미, 맞치/마치,⁵⁾ 여러 가지로, 갓치/가치(皮), 미치디, 기름첼흔, 짐작^ㅎ며’였던 것인데 당시에 활발하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나타난 이른바 과도교정의 예이다. 그러나 구개음화가 철저히 적용된 것은 아니었음을 (8나)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한자어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8다)에서 보듯이 한자음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는 어두의 ‘ㄹ’과, ‘이’계 모음에 선행한 어두의 ‘ㄴ’이 탈락하는 두음법칙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10)은 순음 아래의 평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변화하는 원순모음화의 예이다. (11가)는 중세국어에서는 ‘흘골^으티’로 나타났던 것으로서, 16세기에 ‘o’/b/의 소멸과 함께 이 당시에는 ‘ㄹ’ 뒤에서 ‘ㄱ’이 약화되는 현상이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11나)는 중세어에서는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단어들이 근대국어에서 오히려 ‘ㅎ’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예를

4) ‘遲’의 한자음은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디’였으나, 이렇게 ‘이’계 모음 앞에 ‘디’를 가진 다른 한자음들과는 달리 매우 이른 시기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듯하다. 영조대에 간행된 『三韻聖彙』(1751, 영조 27)에서도 이미 그 음이 ‘지’로 달려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한자어 ‘遲緩^ㅎ-’가 이른 시기부터 ‘지완^ㅎ-’로 표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맞티’는, ‘마치’(←맞+히)에 대해 구개음화와 관련된 과도교정의 결과인 ‘마티’의 중철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1776년에 간행된 해인사판 『念佛普勸文』에서도 발견된다. “나죄 주그니 맞티 불 우희 겁품 좃고(11b)”가 바로 그 예이다.

보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18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언해문이 그렇듯이, 『增修無冤錄諺解』의 언해문에도 한자음이 달라 있어 한자음 연구에 도움이 된다. 한자음 가운데 현대의 것과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만을 예로 들면, '醋조<1:19b>', '乾간驗험<1:27b>'의 '乾간', '腦노後후<1:31a>'의 '腦노'⁶⁾, '棒방<1:38a>', '兩냥耳이竅교<1:30a>, 九구竅교<1:36a>' 등의 '竅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한자음은 『增修無冤錄諺解』과 같은 해에 간행된 『奎章全韻』(1796), 이와 유사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⁷⁾ 앞서 한자음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東동西서南남北북<1:22b>'의 '北북'에서도 당시 고유어에서 일반적이던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한자가 한자음 표기에서와 한자어의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보인다. 앞의 '醋조'에 대한 주석에서는 '초히라<1:19b>'와 같이 그 한자음이 달라져 있으며,⁸⁾ 한자음 표기에서는 '相상左자홀식<1:6b>, 左자右우手슈<1:19b>'에서와 같이 '자'로 달려 있는 '左'가, '좌편 牙아根근이라<1:30b>, 좌우 절린이라<1:56b>' 등과 같은 한자어의 한글 표기에서는 '좌'로 나타나기도 한다.⁹⁾ 또한 원문의 '差官'을 언해한 언해문이 '관원을 치명호야<1:5a>'로 나타

6) '水, 州, 取' 등의 한자음이 언해문에서 '水 |, 州 |'와 같이 한자음을 밝혔던 일을 참고할 때, 각각 '슈~쉬, 쥬~취, 추~취'의 두 가지 음, 곧 'ㅣ(y)'를 가진 한자음과 그렇지 않은 한자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상기할 때, '腦'가, '노' 이외에 '뇌'의 음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頭두腦노 | 뼈를 보라<2:18a>'의 '腦노 |'는 바로 이 한자음을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다(이현희 교수의 견해).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자전류에는 '腦'의 음이 '뇌'로 달린 예를 찾기가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水, 州' 등도 자전류에서는 음이 모두 '슈, 쥬'로만 달려 있음을 고려할 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7) 이 가운데 '竅교'의 한자음에 대해서 『全韻玉篇』에서는 그 '俗音'이 '규'라고 밝히고 있다.

8) 『三韻聖彙』, 『全韻玉篇』 등 근대국어 시기에 간행된 자전류는 물론 중세국어 시기에 간행된 『訓蒙字會』에서도 '醋'의 한자음이 '조'로 달려 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 간행된 『新增類合』(1576, 선조 9)에서는 '초'로 달려 있고 『救急簡易方諺解』(1489, 성종 20), 『倭語類解』(18세기초) 등에서도 언해문의 한자음이 '초'로 달려 있다.

9) 한자음이 아닌 한자어의 한글 표기에서도 '자우룩이라<1:19b>'와 같이 '자'로 적힌 경우도 보인다.

나는데 ‘치뎡’은 한자어 ‘差定’의 한글 표기이다. 따라서 언해문의 한자어 한글 표기에서는 ‘差’의 음이 ‘치’로 달려 있는 셈인데, 한자음 표기에서는 ‘參츰差차 <3:32a>’에서와 같이 ‘차’로 달려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한편 언해문의 ‘쇄장이 오<1:3a>’의 ‘쇄장’도 한자어 ‘鎖匠’의 한글 표기인데, 이 책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의 모든 자전에서는 ‘鎖’의 음을 ‘쇄’로 달고 있어 이 역시 한자음 표기와 한자어의 한글 표기에서 한자음이 차이를 보이는 예가 된다.

3. 문법론적 특징

문법적 측면에서 『增修無冤錄諺解』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책이 18세기 말에 처음으로 간행된 책임에도 그 문법 요소의 형태나 용법이 오히려 15세기 국어의 그것과 유사함을 보이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18세기 말에 처음 간행된 책에서 의고적인 어형이 나타나는 일이 매우 드문 것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2) 가. 피가 死後에 밧그로 發散^{호야}<1:32b>. 혀가 니에 다덜넛고<2:14b> :
상처가 되니<1:33a>
 나. 서르 셋거 보와 알음이라<1:14b>. 언마 되음을 자히고<1:24a>
 나. 격음과<1:24a>. 바름이<1:8a>
 다. 親친히 監감^{호야} 보오^던(躬親監視^{호던})<1:70a>. 올흐며 올티 아너^흠을 알오^던<1:22a>
 다. 즉시 죽으^던(卽死^{호던})<1:32a>. 或혹 뜯고 붉으^던(但紅色或焦赤^{호던})<2:23b>. 皮肉이 상^{호야} 좃물으^던(皮肉이 損爛^{호던})<3:24b>. 겹으^되<3:61a>
 라. 머리^곳 아래 이시면 <3:12a>. 병기^{라도} 늘곳 쁘디 아너^시면 <3:16b>
 마. 다만 먼 이웃이어^나(只捉遠鄰^{이어나})<1:18a>. 衣의物^물이^어든<1:28a>

(12가)는 16세기에 처음 출현하여 17세기 이후에 활발히 사용되는 주격, 보격의 조사 ‘-가’의 예이다. 그런데 『增修無冤錄諺解』 전체에서 ‘-가’가 사용된 예는 이 셋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세국어에서 사용되어 온 ‘-이’를 쓰고 있다. (12나)는, 명사형 어미가 여전히 중세국어와 같은 어형인 ‘-음’을 유지하고 있는 예이다. 중세국어의 ‘-음/음’은 이미 17세기초에 ‘-음/음’으로 변화하

여 대부분의 명사형은 (12나')에서와 같이 나타난다.¹⁰⁾ (12다)는 연결어미로 여전히 중세국어형을 유지한 '-오더'가 사용된 예이다. 명사형 어미 '-음/움'과 마찬가지로 연결어미 '-오더/우더'도 17세기초에 '-으더' 또는 '-으되'로 변화했는데,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12다')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형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보오더'의 구결문에서 보듯이 구결토 '호더'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구결문에 의한 영향도 '-오더/우더 > -으더/으되'의 변화를 거스를 정도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12다')에서 보듯이 해당 구결문에서 '호더'가 사용되었어도 언해문에서는 해당 어미가 '-으더'로 나타나기도 했다. (12라)는 일반적으로 18세기 이후 소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강세의 보조사 '-긫'이 이 문헌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는 용례이다. 물론 중세국어에서와는 달리 모음이나 'ㄹ' 뒤에서 '-긫'이 '-긫'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사라졌지만, 그 형태와 용법은 중세국어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2마)는 계사 '이+거나, 이+거든'이 각각 '이어나, 이어든'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원래 중세국어에서 계사 어간 뒤의 'ㄱ'이 'ㅇ/ㄹ'으로 약화되던 현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나타난 어형이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 이러한 'ㄱ'의 약화 현상은 사라졌는데도 여기에서는 여전히 중세어적인 어형이 사용되었다. 이는 여기에 사용된 구결토 '이어나'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 (13) 가. 白靛은 희게 삿삿흐 형상이오 <1:47b>. 虛히 脹흐고 <3:13a>
 나. 두 손 주먹 권 相去 | 언마 尺寸을 자히라 <2:19a>

(13가)의 '희-'와 '삿삿흐-', '虛흐-'와 '脹흐-'는 의미상 대등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이 두 용언이 연결어미 '-게'와 파생부사 '-이'로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 관계는 특히 '虛히 脹흐고'에 대한 주석문이 '속이 비고 탕흠이라'로 달려

10) 이 문헌에서 명사형으로 '-음/움'을 유지하고 있는 용언은 (12나)에서 보인 '알-, 되-'가 전부이고 '되-'의 명사형이 17·18세기의 문헌들에서 '되움'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알-, 되-'가 지닌 개별적인 특성일 가능성이 있다.

있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의미상 대등한 자격을 가진 용언의 통합이 'V1-게 V2', 'V1-이 V2' 형식으로 표현되는 일은 일반적으로 15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이현희 1994:86). 이러한 표현들이 16세기 말 이후에는 대부분 'V1-고 V2', 'V1-며 V2' 형식으로 변화했음을 고려할 때(이현희 1988:224-225), 이는 의고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13나)는 목적어 명사구 '두 손 주먹 권 相去' 언마 尺寸은 '[두 손 주먹 권 相去] | [언마 尺寸]' 정도의 내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곧 하나의 명사구가 내적으로는 'NP1이 NP2'의 구조를 이루면서 NP1과 NP2가 '주어-서술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는 15세기에 주로 발견되는 '기형적 명사문'(이현희 1994:57-62)과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 발견되는 구문 구조가 이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말에 처음 간행된 『增修無冤錄諺解』에서 이렇게 중세국어적인 의고적 어형들의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검시 담당 계층의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의 결과로 추측된다. 관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사용했던 吏讀은 오랜 세월 동안에도 기본적인 형태는 변화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吏文』, 『吏文大師』 등과 같은 이두 학습서를 통한 지속적 교육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장윤희 1995). 이와 마찬가지로 無冤錄도 언해서로 간행된 것은 1796년의 『增修無冤錄諺解』가 최초였지만, 영조 대에 구택규가 편찬한 『增修無冤錄』은 물론, 그 이전의 『新註無冤錄』에 대해서도 원문에 구결을 달아 실무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학습하도록 해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의 (14나)도 일견 이러한 의고성이 드러난 예처럼 보인다.

- (14) 가. 이에<1:1a>, 잇기에<1:3b>, 고흔 內에<1:11a>, 檢屍홀 때에<1:3a>
 가. 이에 다드라<3:3b>, 致命호기에<1:30a>, 更有暑月九窰內에<3:35b>/更有頂心頭髮內에<1:23b>, 검험홀 때에<1:55a>/검험홀 때에<1:53b>
 나. 冤抑홈이 잇기에 널위논드라<1:3b>

(14가)는 '이'계 모음 뒤에 처격조사 '-에'가 통합되어 있어 중세국어적 질서가 유지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14가')을 통해서, 이러한 의고성은 우연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처격조사의 통합이 매우 불규칙한 혼란의 와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 특히 중세국어에서 ‘제’와 같이 시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면서 ‘ㅈ, ㅊ, ㅊ, ㅊ’ 등의 발음을 가진 체언에는 처격조사의 통합이 저지되던 현상이 존재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제약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¹²⁾ (14나)는 중세국어의 어형 ‘닐위-’가 그대로 유지된 듯이 보이는 예이다. 중세국어의 ‘닐위-’는 ‘니르-’(至)에 사동접미사 ‘-위-’(fuy)가 통합하여 이루어진 사동사인데, 근대국어에는 /h/이 사라졌으므로 *‘니뤼-’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예전의 어형을 유지한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저 앞 (2다)에서 보듯이 파생어에서 어기와 접미사를 분철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의 ‘닐위-’를 중세국어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예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와는 달리 이 책에서는 근대국어 시기에 새로이 등장한 문법 요소와 활용형도 물론 발견된다.

- (15) 가. 어더어더스디라<1:22b>, 신과 보선들스디 니르히<1:27b>, 빗기 髮際스지<2:12a>
 나. 본 증인이 分分明명호디 밋 屍시를 驗험춤에 상흔이 업는디라 檢檢官관이 甚심히 요란스디니<1:42b>
 다. 머리로부터 檢檢야 시작홀신 나히 언마나 흠을 헤아리고<1:24a>
 라. 괴운이 입의 막히매 피 쏘흔 막히이논 故로 굿고 돈든스디니라<1:33a>
 라. 醋槽를 써 攤攤스디앗다가 2장 오라매 槽를 업시코<1:41b>

(15가)는 “도달점”을 의미하는 조사 ‘-스지’가 사용된 예이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사 ‘-스지’는 『捷解新語』(1676, 속종 3)의 ‘路次의 3브매 이제야 門스지 왓습너 <1:1b>’에서 처음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의 ‘-스디’는 ‘-스지’에 대한 과도교정형이다. (15나)는 중세국어의 통사적 구성이었던 ‘-스디라’가, 여기에서는 “이유, 원인”을 의미하는 연결어미 ‘-스디라’로 재구조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문헌에서는 특히 어미 ‘-스디라’의 용례가 많이

11) 이러한 처격조사 통합 환경의 혼란은 특히 17세기의 구결 자료에서부터 발견된다. 언해문이 한문에 구결을 단 구결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결 자료에서의 이러한 혼란이 언해문에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2) 이러한 체언에 처격조사가 통합한 경우는 중세국어에서 ‘들 을 빼에 <구급방언해 하:30b>, 들 을 빼에 <구급간이방언해 1:78b>’ 등에서 매우 드물게 보이다가 16세기 말 『小學諺解』에서부터 활발히 나타난다.

보인다. 이 어미는 『五倫行實圖』 등 『增修無冤錄諺解』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다른 책에서는 여전히 통사적 구성으로 사용된 경우가 보이므로 이 당시가 연결어미 '-ㄴ디라'의 재구조화가 완성되어 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5다)는, 중세국어에서 “이유, 원인”을 표시하던 연결어미 '-을시/을씩'가 이 시기에는 외형은 똑같으면서도 “...할 때에”의 의미를 표시하는 연결어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르씩'의 용법은 이미 17세기부터 보인다. (15라)는 근대국어 시기에 하나의 연결어미로 재구조화한 또 다른 예인 '-으매'의 용례이다. 이 어미는 중세국어의 명사형과 처격조사의 통합체 '-오매'에서 온 것으로서, '-오매 > -으매'의 변화를 거친 후 17세기초에 “이유, 원인”을 의미하는 하나의 연결어미 '-으매'로 재구조화된 것이다(이용 2000: 138-14). (15라')는 17세기에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어미 '-으매'와 외형이 동일하지만, 어미가 아니라 명사형과 처격조사의 통합체인 '-으매'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는 “...함에 있어서, ...할 때”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명사형 어미 '-음/음 > -음/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독특한 활용정도 발견된다.

(16) 가. 실인을 落_락水_수 身_신死_死스_스로 들_들은 自_自投_投투와 推_推퇴入_入입을 지_지당_당티 못_못함
이라 <3:11a>

나. 병_병들_들을 인_인후_후야 <2:18b>, 모_모더_더며 둥_둥꿈_꿈을 <3:18a>

(16)은 '르' 발음을 가진 동사의 명사형을 보인 것이다. '들-(懸), 병들-(病), 둥글-(圓)'의 명사형이 (16가)에서는 '들', (16나)에서는 '병들, 둥꿈'으로 각각 다르게 실현되었다. 우선 (16가)에서는 '-음/음 > -음/음'의 변화 결과인 명사형 어미 '-음/음'의 '으/으'를 당시에 매개모음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어 이후 '르'를 발음으로 가진 용언은 매개모음을 가진 어미와 통합할 경우에[-(으)시- 제외] '알면(←알+면), 아니(←알+니)'와 같이 매개모음이 개재되지 않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의 '들'은 어간 '들'에 직접 'ㄹ'이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매개모음을 지닌 어미와 통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명사형 어미 '-음/음'의 '으/으'를 매개모음과 같이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¹³⁾ (16나)에서는 '병들(병들+

ㄹ). 동꺾(동굴+ㄹ)에서 'ㄹ'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서, 이 당시에 (16가)와 같은 '꺾'류의 명사형에서 'ㄹ'이 탈락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16나)와 같은 활용형은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어형은 아니다.

또한 『增修無冤錄諺解』에서는 근대국어 시기에 새로이 나타나거나 이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파생어도 보인다.

- (17) 가. 고공이와<1:9a>, 항문이<1:64b, 合面의 圖上>
 나. 응문이 솓배와 서르 니인 거시라<1:26b>
 나'. 正정犯범 某모人인이라 標표호야 써 일흠 두이고 <1:67b>
 나''. 人인形형이 일윗거나 或혹 일우더 못흠을 <2:3a>
 다. 소음부터<1:35a>, 사괴부터<3:10b>
 라. 그 혼적이 可히 의심저은 곳이 이심을 보더 못흐거든 <1:41b>

(17가)의 '고공이'는 한자어 '雇工'에 접미사 '-이'가 통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인데, '고공'은 『翻譯小學』(1517, 중종12)에서도 사용되었지만 '고공이'는 『蒙語類解』(1768, 영조 44)에서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항문'은 '肛門'에 접미사 '-이'를 통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인데,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문헌에서도 '合面'의 인체 그림에 표시된 명칭에서만 한 번 보일 뿐 본문의 신체 부위 명칭에서는 '항문'으로 나타난다. (17나)는 피동사 '니이-'의 용례이다. '니이-'는 동사 어간 '닛-'에 피동접미사 '-이-'가 통합하여 이루어진 피동사로서, 활용에서 보이는 불규칙 양상(닛+어→니어)이 파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피동사 '니이-'는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¹³⁾ (17나')의 사동사 '두이-'도 중세국어에서는 물론 다른 문헌에서도 찾기 어려운 단어이다. (17나'')은 기본적으로 사동사인 '일우'가 이 당시에 자동사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다)는 근대국어 시기에 처음 발견되는 접미사 '-부터'에 의한 파생어이다. 이 접미사는 『御製內訓』(1737, 영조 14)의 '아홉 설에 論語와 孝經과 女戒부터 글을 講解호야<3:3b>'에서 처음 보이는

13) 이러한 중세국어의 활용형은 특히 16세기 말 『小學諺解』(1586)에서 많이 발견된다. '다른 姓이 서르 모다셔 길플 드토며 <5:73a>'가 그 예이다.

14) 중세국어에서는 '닛'의 피동사로 '닐위/넛위-'가 사용되었고, '닐이-'는 '닐-'의 사동사였다.

데 '-브티'는 원문의 '…(之)類'에 해당한다. (17라)의 '의심저온'에서는 새로운 접미사 '-접-'이 발견된다.¹⁵⁾

통사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는 특징적 사실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

- (18) 가. 의심내단 말이라<1:2a>. 터무려 토스 맞단 말이라<1:4b>
 나. 十成天銀이 銅鉛 섯기디 아니홀 거스로써 監臨호야 成造호고<1: 20ab>
 다. 비록 평평腹복호연 디 오라나<1:37a>
- (19) 가. 다시 불노빠 죄야 스뭇출 만호야든 불을 췌우고<1:42b>
 가. 만일 붉은 거슨 스스로 붉을 만호고 검붉은 거슨 스스로 검붉을 만호야<1:34a>
 나. 응당히 이웃 갖가온 디 膿호얌 죽호거늘<1:6a>
 다. 형상 되음이 자라도 갓터며 비암도 갓튼 것들은 異氣를 바다 넬원 배오(或成形이 如驚如蛇等則受異氣所致)오 <2:4b>
 다. 늪의게 밀터 물에 드린 거슨 (被人推入河는) <3:11a>
 라. 成獄호음도 또호 的確기 어려우니 <1:53b>

(18가)는 종결어미로 종결된 문장이 '-니'을 취하여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이때의 '-니'은 외형상으로나 기능상으로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문장의 기원은 '너비 비취닷 뜨디오<월석2:9b>, 물 이루움 갓 疑心이<월곡상:기53>' 등과 같은 문장이었다. 곧 '-니'은 기원적으로 속격조사 '-시'이었던 것이다. 이는 근대국어 단계에 들어와 속격 '-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종결된 문장 뒤에 속격 '-시'이 통합하는 용법을 이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이때의 '-시'을 관형사형 어미 '-니'으로 오해한 결과 나타난 것이 이때의 '-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특히 주석문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18나)는 후행하는 '것'이 앞의 '十成天銀'을 되받는 대응적 용법으로 사용된 문장을 보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문장에서는 '것' 대신에 의존명사 '이'가 사용되던 것인데, 이 시기에는 중세국어의 '이'의 역할을 '것'이 대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15) 황문환(2001)에서는 이 '의심저온'이 종래 '의심저'의 활용형으로 처리되어 왔으나 실은 '의심접'의 활용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접'은, '-저'이 통합한 단어의 파생부사 '-저이'형을 오분석한 결과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다. (18다)는 이른바 시간 경과 표현으로서 항상 중세국어 이후 시간 경과 표현은 항상 ‘...흐건/흐얀 디’의 형식이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에도 이러한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세국어에서는 ‘흐-’ 뒤에서 ‘-거/어-’는 양성의 ‘-야-’로 교체되는 데 비해 여기에서는 음성의 ‘-여-’로 교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9가.가)은 이 시기에 보이는 ‘-을 만흐-’의 용법을 보인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만’은 “한정”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만’은 일반적인 보조사와는 달리 주격, 대격, 속격조사 앞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조사들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만’이 근대국어까지도 의존명사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이현희 외 1993-2000) 근대국어까지 ‘만’은 의존명사로서 “정도, 동안”, “한정”의 의미를 표시했는데, 중세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여기에 ‘-흐-’가 통합한 ‘만흐-’는 보조형용사로서 주로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예가 (19가)이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한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는데, (19가)과 같은 예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 문헌에서는 “한정”의 의미로 사용된 ‘-르 만흐-’의 용례가 다른 문헌에 비해서 자주 보인다. (19나)는 ‘-음 직흐-’ 구문으로서, “당위”의 의미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중세국어의 ‘-암/업 직흐-’에서 이어진 것인데,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의 ‘-음 직흐-’에 이르기까지 “가능성”과 “당위”의 의미를 모두 표시할 수 있었다(장윤희 2001 참고). (19다)의 원문 중 ‘所致’는 피동적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렇게 피동적 의미를 지닌 문장이 언해문에서는 사동사 ‘닐위-’를 사용하여 언해되었다. 이는 (19다)에서도 발견되는데, 피동적 의미를 지닌 문장이 동작주가 ‘NP의게’로 표시되고 뒤의 ‘V’에 사동사 ‘밀타-, 드리-’가 온 형식이다.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의게 謀害함을 넘어 <3:12a>와 같은 ‘NP의게 V홈/호몰 넘-’(NP:동작주, V:능동사) 또는 ‘잘못하면 사람의 수지즘을 넘느니라 <오륜전비언해 8:11a>와 같이 주어적 속격형을 지닌 ‘NP의 V홈/호몰 넘-’(V:능동사)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일이 일반적이는데, (19다.다)에서는 피동적 의미를 표시하는 ‘넘-’ 등이 없으면서도 사동사(능동사)가 사용되어 피동적 의미를 표시한 경우이다. (19라)는 ‘V-기 어렵-’ 구문의 V 자리에 형용사(‘的確흐-’)가 온 때

우 드문 경우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물론 근대국어에서도 이 자리에는 동사가 오는 일이 대부분이다.

한편 이 책의 언해문 역시 축자역에 가까운 직역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언해문이 다소 어색한 국어 문장이 된 경우가 종종 눈에 뜨인다.

- (20) 가. 므슴 衣服色樣을 넘어시며 므슴 記號 | 이심과 밋 身上에 므슴 허물
알을 곳이 잇는고 다더 무려<1:21-22>
나. 저기 의심된 곳이 이셔 들뜬 갖치 破과損손호얏거든(稍有疑處호야 浮
皮破損이어든) <1:36a>
다. 만일 十집日이 지나 써 오던(若經十日以來則…) <1:44b>
라. 주먹 맞고 츠이고 毆구打타호야 죽임을 넘은 後후에(被拳踢毆打死에)
<2:23a>

(20)은 언해문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경우들이다. (20가)는 세 개의 의문문이 접속된 문장인데, 독특하게도 ‘…으며 …음과 …은고’와 같은 형식으로 접속되어 있어 부자연스럽다. 이는 ‘므슴 衣의服복色식樣양을 넘어시며 므슴 記號호 | 이시며 (밋) 身신上상에 므슴 허물 알을 곳이 잇는고’ 정도로 언해되어야 자연스럽다. (20나)는 원래의 한문 ‘稍有疑處浮皮破損’에서 ‘浮皮破損’이 ‘疑處’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함에도 ‘疑處’ 뒤에 구결 ‘호야’를 달아 ‘稍有疑處호야 浮皮破損이어든’으로 구결문을 만들고 이를 반영하여 언해했기 때문에 언해문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진 경우이다. 의미상으로는 “들뜬 살갓이 파손되는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거든”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20다)의 언해문이 다소 어색한 국어 문장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원문의 ‘以後’가 “이후부터는” 정도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인데도 이를 축자역했기 때문이다. (20라) 역시 원문을 축자역하여 언해문이 다소 어색해진 경우이다. 원문의 ‘被拳踢毆打’는 모두 ‘死’의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언해문에서는 이를 ‘被拳踢과 毆打’으로 구분하여 ‘拳踢’은 피동적으로(주먹 맞고 츠이고) 언해하고 뒤의 ‘毆打死’는 사동적으로(毆구打타호야 죽이-) 언해하였다. 그 결과 앞의 ‘주먹 맞고 츠이고’의 주어와 ‘毆구打타호야 죽이-’의 주어가 일치하지 못하게 되어 어색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주먹 맞고 츠이고 毆구打타호모 넘어 죽은’이나 ‘주먹 터고 츠고 毆구打타호야 죽임을 넘은’ 정도로 언해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4. 어휘론적 특징

이 책에는 다른 곳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招辭, 差定, 行關, 結案, 反坐, 供辭, 貼聯, 申報, 辜限, 呈告, 原隻” 등 사법, 법제와 관련된 어휘가 많으며, 권1의 屍帳式에서는 각종 신체 부위에 대한 한자어와 고유어를 같이 확인해 보기에 매우 용이하다. 앞서 이 문헌의 문법 요소가 의고성을 띄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어휘에 있어서도 의고적인 용법이 발견된다.

(21) 醋糟를 써 擁糞호았다가 ㄹ장 오라매 糟를 업시코<1:41b>

(21)의 ‘ㄹ장’은 원래 한문의 ‘良’을 언해한 것이다. 중세국어 단계, 특히 15세기에는 ‘ㄹ장’이 “매우”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최상급의 의미(最)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다가,¹⁶⁾ 16세기 말엽부터는 ‘ㄹ장/ㄹ장’이 최상급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따라서 이 문헌이 간행된 시기에는 ‘ㄹ장’이 최상급의 의미를 표시하는 부사로 사용되는 일이 일반적이는데, 이 문헌에서는 (22)에서와 같이 최상급이 아닌, “매우”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增修無冤錄諺解』에서는 명사와 용언 어간이 중세국어와는 달리 재구조화한 예가 많이 보인다.

(22) 가. 숫치라<1:20a>, 압히어나<1:22a>, 보돌웃시며<1:25a>, 숫출<1:26b>, 에엇치 <1:28b>
 나. 屍首 | 오라야 卍脹호고 석어 허여더 <1:22a>
 분명터 아녀<1:8b>, 아녓다<1:24b>

(22가)는 이 당시에 재구조화한 명사의 예이다. 우선 ‘숫치라’에서는 명사 ‘숫’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세국어에서는 ‘슌’이었다.¹⁷⁾ 이렇게 ‘슌’이 ‘숫’으

16) 중세국어에서 최상급의 의미를 표시하는 부사로 ‘밋, 안직’ 등이 사용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17) 중세국어의 ‘나모 스라 숫 드외요미 곧고<월인석보 14:67a>’ 등에서도 ‘숫’이 보이지만 이는 ‘슌’의 어간말 자음군 단순화를 반영한 표기로서 (22가)와 같은 18

로 재구조화된 예는 『明義錄諺解』(1777, 정조 1)의 ‘도탄은 즌흙과 솟치라〈권하 어제음음:1b〉’에서 보이기 시작했다.¹⁸⁾ 재음소화 표기인 ‘압히어나’에서는 명사 ‘앞’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세어 ‘앞’에서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小學諺解』(1586, 선조 19)의 ‘아프로 옷기슬 둥고고 뒤후로 옷기슬 글 잇그려 〈5:70b〉’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보돌옷’은 흔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보도룻〈법화 6:145a〉’이 보이고 근대어 초기에 ‘보돌오출〈동신 호 2:87b〉’의 예가 보이므로 중세국어에서는 형태음소 ‘지’을 지닌 ‘보도룻’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형태음소 ‘시’을 가진 ‘보도룻’으로 재구조화한 예는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 광해 9)의 ‘보도롤슬 〈호2:49b〉’에서부터 발견된다. 이 책에서는 당시의 일반적인 음절말 표기 경향과는 달리 음절말 ‘시’을 ‘ㄷ’으로 적었으므로 ‘보도롤슬’은 ‘보도룻+을’을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솟’은, 중세국어의 ‘글’이 16세기에 어두 된소리화를 거쳐 ‘쓸’이 되었다가 18세기 말엽에 ‘솟’으로 재구조화한 것이다. 재구조화된 ‘솟’의 예는 1777년(정조 1)에 간행된 『明義錄諺解』의 ‘의구호는 솟출 삼는 고로〈권수 상:43a〉’에서 보인다. ‘에엿’의 중세국어형은 ‘몬져 덩종스 앵어출 대 빈허로 덜어 혈운 후에 〈구간 3:12b〉’에서 보듯이 ‘앵엿’이었다. 이 ‘앵엿’이 근대국어에 와서 ‘앵엿’으로 재구조화한 예가 1632년(인조 10)에 간행된 『家禮諺解』의 ‘그 두른 앵어치 아홉 치오〈6:3a〉’에서 보인다. 여기에서 변화한 것이 여기의 ‘에엿’인 것이다.¹⁹⁾ 한편 (22나)는 용언 어간이 재구조화된 예이다. ‘오라야’는 ‘오래+야’의 활용형으로서 ‘ㅣ(y)’ 유동 현상을 반영한 표기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오래’였던 것인데, 이미 16세기 말 『小學諺解』의 ‘理ㅣ 順호음은 오라야 스스로 어들 거시라〈5:115a〉’에서부터 ‘오래-’로 어간 재구조화된 예가 발견된다. 이 시기의

세기 후반의 ‘솟/숯’과는 다르다.

- 18) 이와 동일한 재구조화 과정을 거친 ‘똥터나〈1:27b〉’도 발견된다. 이는 외형상 ‘똥+이나’를 표기한 것과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또한 ‘숯 > 솟’과 마찬가지로 재구조화를 경험한 것으로 이 당시에는 이미 ‘똥’으로 재구조화되어 있었다. ‘똥+이나’의 중절 표기인 ‘똥치나’에 대하여 구개음화와 관련된 과도교정의 결과가 바로 ‘똥터나’이다.
- 19) 『增修無筭錄諺解』보다 약간 앞서 간행된 『漢清文鑑』(18세기 말, 영조말), 『譯語類解補』(1775, 영조 51) 등에서는 ‘에엿’ 제1음절의 ‘ㅣ(y)’ 유동 현상으로 인한 ‘어엿’도 보인다.

‘아녀’는, 기원적으로 ‘아니’에 계사가 통합한 ‘아니+이’가 용언 ‘아니-’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도 ‘法 아니로 <1:3b>’와 같이 명사적으로 사용된 ‘아니’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여기에서 보이는 ‘아니-’가 하나의 용언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되었다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 밖에 이 문헌에는 다른 문헌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어휘들이 보인다.

(23) 가. 알맞게 흐고<1:42b>

나. 물이 펴 김고<3:11b>, 펴 크고 <1:31b>

다. 重흔 형옥의 굽으며 바름이 일 초두를 밀위여 즈세히 흠애 이시니 <1:8a>

(24) 가. 입 웃거엄이라(上顎)<1:30b>

나. 나믄<1:20b>

다. 손짓기물<1:2a>

라. 두 발바닥이 주룩주룩 허여흐디 아니코 (兩脚底 | 不皴白)<3:13a>

(23)의 형용사 ‘알맞-’, 부사 ‘펴’, 동사 ‘밀위-’는 중세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근대국어 시기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된 단어가 아니다. ‘알맞-’은 『朴通事諺解』(1677, 숙종 3)의 ‘이 갓을 믿들기를 알맞게 흐였다 <박언 중:25b>’에서, ‘펴’는 1756년(영조 32)에 간행된 『蘭義昭鑑諺解』의 ‘너의 논 펴 너르고<4:9b>’ 등에서 처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다) ‘밀위-’는 그 외형으로 보아 ‘밀-’(推)에 사동접미사 ‘-위-’가 통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보이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단어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미루어 짐작하다, 생각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²⁰⁾ (24)는 다른 문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어휘들이다 (24가)의 ‘웃거엄’은 ‘上顎’에 대한 주석으로 제시된 어형인데,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24나)의 ‘나믄’는 “餘”(나머지)의 의미를, (24다)의 ‘손짓

20) 중세국어에서 ‘밀-’의 사동사로는 ‘밀이-’만이 보이는데 이는 “밀게 하다”의 의미로만 사용되었을 뿐, “미루어 생각하다, 짐작하다”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근대국어 단계에 들어 ‘밀-’의 또 다른 사동사 ‘밀오/밀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미루어 생각하다”의 의미 외에 “떠넘기다”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기'는 “下手”(손저검)의 의미를 지닌 명사인데, 다른 문헌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24라)의 ‘주룩주룩’은 당시까지의 다른 문헌들에서 잘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皺”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매우 특이하다.

5. 결 론

『增修無冤錄諺解』는 살인 사건과 관련된 檢屍의 방법과 원칙, 檢案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한 검시 지침서로서 1796년(정조 20)에 처음으로 간행된 책이다. 이 책에서는 당시의 다른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국어 사실은 물론, 다른 곳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거나 이 책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사실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여기에서 보이는 문법 요소와 단어의 형태나 용법이 의고성을 띠고 있어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增修無冤錄諺解』가 간행되기 이전에 『新註無冤錄』, 『增修無冤錄』 등의 한문본에 구결을 달아서 이를 교재로 검시 담당 실무 계층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학습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增修無冤錄諺解』의 표기·음운론적 측면에서는 당시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반면에 문법론적 측면에서는 의고성을 지닌 것과 당시의 국어 현실을 반영한 것 모두 발견된다. 문장 또는 구문의 측면에서는 중세국어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예가 많은 반면, 단어 형성과 관련된 파생 형태소 등에서는 당시의 국어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음을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增修無冤錄諺解』가 간행되기 이전에 구결을 달아 교육하고 학습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문장이나 구문은 이전의 구결문의 영향을 받기 쉬운 데 비해서, 각 단어는 상대적으로 구결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론적인 측면에서 몇몇 단어는 그 의미나 용법이 의고성을 띠고 있기도 했다.

『增修無冤錄諺解』는 내용이나 그 안에서 발견되는 국어 사실 모두 매우 독특한 성격의 자료이다. 특히 이러한 독특함은 이 책을 근대어 자료로 이용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여기에 나타나는 의고성을 지

년 요소들을 과연 당시의 국어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의고성을 지닌 요소들은 당시의 국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책을 근대어 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

참 고 문 헌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김신근 편(1988),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49(新註無冤錄 增修無冤錄諺解 檢
要), 여강출판사
- 박석무·정해림(1999), 역주 欽欽新書, 현대실학사.
- 법제처 편(1979), 고법전용어집, 법제처.
- 안병희(1992), 국어사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유창돈(1971),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 이해준·김인걸 외(1993),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진호(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읍운론, 국어연구
147.
- 이 용(2000),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박사학위논문.
- 이현희(1988), '소학'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신논문집(한신대학) 5집.
- 이현희(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현희(1996), 한국 고전의 역주와 국어국문학, 한국문화 17: 1-16.
- 이현희(2000), 『武藝圖譜通志』, 정조대의 한글문헌, 태학사: 205-221.
- 이현희 외(1997), 두시와 두시언해 6/ 7, 신구문화사.
- 이현희 외(1993-2000), 두시언해 강독 자료, 복사물.
- 장윤희(1995), 이두에 나타난 국어 활용어미의 체계와 성격, 전농어문연구(서
울시립대국문과) 7집.
-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장윤희(2000), 『增修無冤錄諺解』의 자료적 특성과 역주의 실제, 한국문화연구소 제12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호-'의 문법사, 형태론 3권 1호
- 정재영(1999/2000), 법의학서, 『增修無冤錄大全』과 『增修無冤錄諺解』, 정조대의 한글문헌, 태학사: 185-204.
-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 태학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 (1), 태학사.
- 홍윤표(1994), 규장각 소장 근대국어 문헌자료의 종합적 연구, 한국문화 15: 1-55.
- 홍종선 엮음(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황문환(2001), '의심접다'와 '의심졌다', 형태론 3권 1호

국문초록

近代語 資料로서의 『增修無冤錄諺解』

장 윤 회

1796년(정조 20)에 처음으로 간행된 『增修無冤錄諺解』에는 당시의 다른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국어 사실은 물론, 다른 곳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거나 이 책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국어 사실도 찾을 수 있다. 표기·음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에는 당시의 국어 사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에는 15세기 국어에서와 같은 형태나 용법을 지닌 요소와 당시의 국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 모두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특히 문장이나 구문의 차원에서 그러했으며, 후자는 파생 접미사 등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독특한 현상은 『增修無冤錄諺解』가 간행되기 이전에 『新註無冤錄』, 『增修無冤錄』 등의 한문본에 구절을 달아서 이를 교재로 겸시 담당 실무 계층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학습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어휘론적 측면에서는 몇 단어가 15세기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을 근대어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 나타난 현상들이 당시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Jeungsu-muwollok-eonhae (增修無冤錄諺解) as a Research Source for the Modern Korean Language

Jang, Yoon-hee

Jeungsu muwollok eonhae (增修無冤錄諺解), which is the Korean version of *Jeungsu muwollok daejeon* (增修無冤錄大全), was published in 1796 (Jeongjo 20). Although it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it displays not only linguistic characteristics that are discovered in other documents published at the same period, but also distinctive and uncommon features that are rarely found in other documents. In orthography it follows the conventions of the period, and in phonological phenomena it adheres general tendency of the Korean of the period. So in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aspects, it does not differ markedly from other documents of the period. But in grammatical aspects, it shows features in common with the Korean of the 15th century as well as facts that reflect the Korean of the period. Especially, in some sentence patterns it shows a strong resemblance with the Korean of the 15th century, while on the other hand the derivational suffixes found in it are characteristic of the 18th century. Possibly the reason for this characteristic phenomena is due to the fact that the officials in charge were continuously educated and trained using the original text, in which *Gugyeol* (口訣) was written in the space between Chinese characters. According to this discussion we can see that in order to use this text as research source for the Modern Korean, above all, one has to distinguish features which reflect the Korean language of the period from those which do not.